

2009년도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7회 동계 심포지엄

특집

2009년도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7회 동계 심포지엄



2009년도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7회 동계 심포지엄

특집

2009년 2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전국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7회 동계 심포지엄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매년 1차례 각 대학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전국 대학의 교수학습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대학 교육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귀중한 성찰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2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대학 교수학습의 전문성 강화'로 짧은 기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학 교육의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온 교수학습센터의 고유기능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고등 교육의 질 향상은 대학 모든 구성원과 기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특히 교수학습센터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의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기관이다. 올해의 심포지엄은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더 전문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고등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접근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대학들은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핵심과제를 앞에 놓고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와 토론에서 그간 교수학습센터들의 고민과 이를 통한 노력에서 많은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심포지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위해 심포지엄의 과정과 내용을 점검하는 특집을 준비하였다. 전체적인 점검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의 행사 개요와 목표 및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혜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교수

박은미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팀 팀장

1. 행사 개요

□ 행사 명: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7회 동계 심포지엄

□ 주 제: 대학 교수-학습의 전문성 강화와 CTL

- 기 간: 2009년 2월 13일(금) 9:30 ~ 17:00
- 장 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대회의실(320호)
- 주 최: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 주 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II. 행사 목적 및 기획 내용

1.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프로그램, 행정체제, 인력, 예산 등은 물론 교수학습 분야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타 대학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제7회 동계 심포지엄 유치를 통해 협의회 발전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심포지엄 주관교인 서울대학교는 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심포지엄의 대주제를 ‘대학 교수학습의 전문성 강화와 CTL’로 설정하였다.
 - 하위주제인 분과논의는 1) 대학 교육력 강화방안(교수지원), 2) 대학 학습력 강화방안(학습지원), 3) 대학 e-Learning 전문성 향상 방안(e-Learning 지원), 4) 대학 글쓰기 능력 강화 방안(글쓰기지원), 5) 연구 프로젝트 결과 발표 등으로 구성하였다.
 - 본 동계 심포지움을 통해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각 대학의 사례, 대학 교수학습센터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운영하였다.

III. 동계 심포지엄 주요 내용

심포지엄 시작은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장무 총장은 현 시점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각 대학들은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혁신하고, 학제적 혹은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를 장려하고, 이런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확충과 더불어 합리적 평가 및 인센티브제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대학의 지원시스템을 진일보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교수학습센터는 이런 체제의 완성도를 위해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1. 기조강연

제7회 동계심포지엄 기조강연은 상명대학교 이현청 총장의 ‘대학 교수학습의 전문성 강화와 CTL’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기조강연을 통해 ‘대학기능의 변화와 CTL의 배경’, ‘CTL의 기능과 역할’, ‘CTL의 유형’, ‘교수개발센터와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CTL 교수개발의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추후 CTL은 21세기 대학 변화의 주된 흐름이 ‘교수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학습력 향상’ 및 ‘교육력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대학 내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수법 개발과 운영, 학생의 학습방법과 학업성취도 신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특정한 분야나 특정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학습망과 학습매체, 학습자원의 주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장무 총장(서울대학교)〉



〈이현청 총장(상명대학교)〉



〈기조 강연〉

2. 주제발표

〈Track I 대학 교육력 강화〉

Track I에서는 ‘대학 교육력 강화’를 대주제로 교양 학과목 교수방법과 ‘강의평가에 대한 연구(삼육대학교 박완성)’, ‘대학 수업 자체점검지표와 지침서(창원대학교 임미경)’, ‘교수자를 위한 런치타임 워크숍 사례(한림대학교 간진숙)’, ‘티칭 스타일 진단 시스템 개발 및 활용 사례(이화여자대학교 임규연 외 2인)’,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교수연구모임 사례: 성과와 과제(덕성여자대학교 성낙돈 외 6인)’,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교육혁신모델 탐색 -Greenfield Strategy-(관동대학교 김희배)’의 총 6팀의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Track I〉

〈Track II 대학 학습력 강화〉

Track II에서는 ‘대학 학습력 강화’를 대주제로 ‘대학생 개인의 학습유형 분석이 학습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CTL “학습법클리닉” 사례(동국대학교 박명숙 외 1인)’, ‘대학생 학습력 증진을 위한 학습전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경희대학교 노원경)’,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신입생 프로그램 효과 및 요구(한림대학교 신소영)’, ‘대학 신입생의 영어강의 수강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서울대학교 홍성연 외 2인)’, ‘튜터링 운영방식에 따른 튜터, 튜티 특성 연구(이화여자대학교 김연희 외 2인)’의 총 5개 팀의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Track II>

〈Track III 대학 e-Learning 전문성 향상〉

Track III에서는 ‘대학 e-Learning 전문성 향상’을 주제로 ‘대학 이러닝 확산 및 촉진’을 위한 대학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전국대학이러닝지원센터협의회를 중심으로(청주대학교 최미나 외 1인), ‘사이버대학에서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1:1 비디오, 오디오 강의 클리닉의 운영사례(서울디지털대학교 정영란)’, ‘학습공간 인식을 위한 Visual Organizer 개발 및 활용(대구가톨릭대학교 한안나)’,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질 관리를 위한 사용성 평가방안(서울대학교 이혜정 외 1인)’의 총 4개 팀의 주제 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Track III〉

〈Track IV 대학 글쓰기 능력 강화〉

Track IV에서는 ‘대학 글쓰기 능력 강화’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글쓰기 교실의 현황 및 프로그램 사례의 분석을 통해 글쓰기 교실의 역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경북대학교 윤금희, 서울대학교 정병기, 숙명여자대학교 이명실, 연세대학교 이인영, 전남대학교 김현정).



〈Track IV〉

3.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 소모임 발표

〈연구 프로젝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총 4개 연구팀의 프로젝트 결과발표가 이루어졌다. '대학 신입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전남대학교 박선희

외), '대학 온라인 수업에서 상호작용 촉진전략 탐색(부산디지털대학교 심영남 외)', '대학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티칭 포트폴리오 개발 지원방안(대구가톨릭대학교 조용개 외)', '법학 적성시험 논술대비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연세대학교 김병길 외)'의 총 4개 연구팀이 지난 프로젝트 기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연구 소모임〉

연구 소모임 결과 발표에서는 '전국 대학별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교육업적평가 반영 현황 및 시사점(충남대학교 김용남 외)'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었다.

IV. 평가와 제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제7회 동계심포지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 제7회 동계심포지엄은 129개 대학 281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당일 곳은 날씨와 예상외의 많은 인원의 참석으로 심포지엄 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참석자들의 이해로 잘 마무리 되었다.
- 기조 강연 및 분과 발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87%가 '대체로 유익했다' 이상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표 주제가 이전 심포지엄이나 다른 협의회 발표와 중복되거나, 특정 대학의 사례 발표 수준으로 연구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센터장이나 교수들의 참여가 부족해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심포지엄 준비시에는 발표과제 접수 기간을 충분히 하고, 접수 된 발표과제의 주제나 내용, 다른 발표와의 관련성 등은 사전에 조정하여 운영한다면 심포지엄의 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단국대학교에서 주관한 제6회 동계심포지엄에서 건의되었던 협의회 차원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이번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연구 주제의 참신성 부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문제, 그리고 참여 대학의 제한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 심포지엄 운영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시간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시간 제한으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후반부 발표자의 경우 제한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발표가 진행되기 어려웠으며, 지방 참석자의 경우 연구 프로젝트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참석자의 경우 4개 트랙으로 운영된 분과 발표를 2개 트랙(2회)으로 운영하여 관심 주제에 참여할 기회를 더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심포지엄 운영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운영 일정을 1일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총회〉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시설 투어〉

제1회 학습 전문가 양성 과정

교수학습지원기관의 학습지원 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습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최합니다. 소정의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께는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명의의 이수증을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주제]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습전략 전반에 대한 이론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법)

[대 상] 전국 대학 학습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일 시] 2009년 8월 20일(목)~21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장 소] 교수학습개발센터 (61동) 121호

[참가비] 25만원

[문 의]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팀(880-1327, empark@snu.ac.kr)